

국 어

1. 다음 중 언어의 정서법으로 볼 때 이질적이지 않은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 ① 칠흑 - 화투 - 꽃발 - 가자미식해 - 시래기국
- ② 시나브로 - 칠흑 - 끝발 - 가자미식해 - 굶뱅이
- ③ 가자미식해 - 화투 - 굶뱅이 - 두더지 - 시래기국
- ④ 칠흑 - 돌맹이 - 가자미식해 - 꽃발 - 두더쥐
- ⑤ 돌맹이 - 화토 - 칠흑 - 시래기국 - 시나브로

2. 다음 한자어의 사이시옷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횃수(回數) ② 셋방(貰房)
- ③ 찻간(車間) ④ 숫자(數字)
- ⑤ 냇과(內科)

3. 다음 중 고유어인 ‘두역시니’의 의미로 올바른 것은?

- ① 두엄을 만들어 두는 곳
- ② 모질고 사나운 귀신
- ③ 추수한 수확물을 쌓아두는 자리
- ④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
- ⑤ 벼짚으로 엮어 만든 그릇

4. 다음 단어들의 한자어표기가 올바른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원래 지문문제인데, 복원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한자 문제는 맞습니다.)

규범을 확립해 보려는 혼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며, 그 규범에의 지향의지는 그의 비평을 규범적 해석으로 일관하게 했다고 생각된다. 당대의 병폐를 시정하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그의 비평의 기초이다.

- ① 規範 - 指向 - 病廢 - 是正 - 內包
- ② 闡範 - 指向 - 病弊 - 是正 - 內包
- ③ 規範 - 指向 - 病弊 - 是正 - 內胞
- ④ 闡範 - 志向 - 病廢 - 是正 - 內包
- ⑤ 規範 - 志向 - 病弊 - 是正 - 內包

5. 다음 중 한자의 구조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樂山 ② 治國
- ③ 修身 ④ 歸家
- ⑤ 讀書

6.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제1항. 표준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효용성 ② 명확성
- ③ 전통성 ④ 적응성
- ⑤ 현실성

7.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삼겹살에는 역시 상치쌀이 제격이다.
- ② 여기 시원하게 미숫가루를 타 드세요.
- ③ 지리한 장마가 끝나 간다.
- ④ 당신이 생각한 대로 해 보구료.
- ⑤ 이번에 꼭 성공하시길 바래요.

8. 다음 중 밑줄 친 두 단어가 맞는 것끼리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웅덩이에 물이 (괴다 / 코이다).
- ② 험거운 나사를 (죄다 / 조이다).
- ③ 음식물에 벌레들이 (꼬다 / 포이다).
- ④ 햇벌을 (죄다/쪼이다)
- ⑤ (소고기 / 소고기) 한 근에 얼마인가요?

9. 다음 중 중복된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문장은?

- ①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면 선거의 결과는 무효가 됩니다.
- ② 내 인생의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볼 때 부끄러울 때가 있었다.
- ③ 그때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 ④ 우리 모두 미리 연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⑤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10. 다음 중 외래어표기가 옳은 것끼리만 짝지어진 것은?

- ① 뷔페, 초콜렛, 컬러
- ② 킨셀, 마니아,윈도
- ③ 악세사리,파이팅,리더십
- ④ 플래카드, 로봇, 캐럴
- ⑤ 앙코르, 레포트, 바비큐

11. 다음 글의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여워해 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 주고 그러지요. 이때는 그 레슬링 하는 그림책이 아니어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 주요섭, '사랑 손님과 어머니' 중에서 -

- ①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대상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② 주요섭의 <사랑손님과 어머니>, 이상의 <날개>와도 연관된다.
- ③ 작가의 직접적인 서술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 ④ 외부관찰에 의거하여 해설을 하지 않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제시한다.
- ⑤ 작품의 부수적 인물이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다.

12. 다음 글의 설명으로 볼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60년대의 서정주는 그 자신의 시세계의 가장 깊은 심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라는 설화적 세계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의 ()에 대한 관심이 반역사적 지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이 설화적 공간은 시인의 상상력의 고향과도 같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① 설화 ② 민담 ③ 신라
- ④ 백제 ⑤ 고구려

13. 다음 중 작가와 작품의 연결이 옳게 된 것은?

- ① 김동인 - 배따라기, 광화사
- ② 김동리 - 화랑의 후예, 병어리 삼룡이
- ③ 황순원 - 카인의 후예, 백치 아다다
- ④ 이효석 - 메밀꽃 필 무렵, 봄봄
- ⑤ 이 상 - 날개, B사감과 러브레터

14. 다음 시의 작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나의 가는 곳
어디나 백일(白日)이 없습소냐.

머언 미개(未開)스 적 유풍(遺風)을 그대로
성신(星辰)과 더불어 잠자고
비와 바람을 더불어 근심하고
나의 생명과
생명에 속한 것을 열애(熱愛)하되
삼가 애련(哀憐)에 빠지지 않음은
- 그는 치욕(恥辱)임일레라.

- ① 국민문학과의 문학성을 수용하고 있다.
- ②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③ 대상을 표현하기 위한 언어의 기교가 두드러진다.
- ④ 인간의 원초적인 생명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15. 다음 글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에 대한 평설이다. 글이 취하고 있는 비평의 관점으로 적절한 것은? <지문을 적어온 학생이 없어서, 임시로 글을 하나 옮겨서 새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만약 아래와 같은 식이라면 독자에게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려는 것이므로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정확한 복원이 아니므로 이 문제로 다루지 마세요. 지문을 적어온 학생은 연락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엄마라는 단어는 단어만으로도 사람들에게 복받쳐 오르는 감정과 동시에 평안이라는 느낌을 가져다준다. 그런 엄마를 부탁한다는 이 소설의 제목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동시에, 누구에게나 친근한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해 '부탁한다.'라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것과 같은 어감으로, 제목을 접하자마자 이미 무관심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죄책감과 이끌어내 자괴감에 빠져들게 하는 것만 같다.

- ① 구조론적 관점 ② 효용론적 관점
- ③ 표현론적 관점 ④ 반영론적 관점
- ⑤ 내재적 관점

16. 다음 작품이 속하는 문학장르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밝가벗은 아해(兒孩)들이 거미줄 태를 들고 개천으로 왕래하며 / 밝가송아 밝가송아 저리 가면 죽느니라 이리 오면 사느니라 부르느니 밝가송이로다 / 아마도 세상일이 다 이런가 흐노라

- ① 구체적이고 서민적인 소재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애정의 욕욕과 욕망을 노래하는 작품도 있다.
- ③ 당시 지배층의 부패함을 비판하는 작품이 있다.
- ④ 서정적이면서 영탄적 정서를 보이고 있다.
- ⑤ 비판과 풍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17. 다음 작품들의 시대적 순서가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서경별곡 - 청산별곡 - 사미인곡 - 어부사시사 - 일동장유가
- ② 서경별곡 - 사미인곡 - 청산별곡 - 어부사시사 - 일동장유가
- ③ 서경별곡 - 어부사시사 - 청산별곡 - 사미인곡 - 일동장유가
- ④ 청산별곡 - 서경별곡 - 사미인곡 - 어부사시사 - 일동장유가
- ⑤ 청산별곡 - 서경별곡 - 찬기과랑가 - 어부사시사 - 일동장유가

18. 다음은 신재효의 <광대가>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게 짝지어진 것은?

거려진지 우리 행락, 광대행세 좋을시고 그러나 광대행세, 어렵고 또 어렵다. 광대라 하는 것이, 제일은 (㉠)치레 둘째는 (㉡)치레, 그 다음은 (㉢)이요, 다음은 (㉣)라. (㉤)라 하는 것은 구성지고 뻔시있고, 경각에 천태만상, 위선위귀 천변만화, 좌상의 풍류호걸 구경하는 남녀노소 울게 하고 웃게 하는, 이 구성 이 뻔시가, 어찌 아니 어려우랴 (㉥)이라 하는 것은, 오음(五音)을 분별하고, 육율(六律)을 변화하여, 오장에서 나는 소리, 농락하여 자아낼 제, 그도 또한 어렵구나. (㉦)이라 하는 것은, 정금미옥 좋은 말로 분명하고

완연하게, 색색이 금상첨화, 칠보단장 미부인이, 병풍 뒤에 나서는 듯, 삼오야 밝은 달이, 구름 밖에 나오는 듯, 새눈 뜨고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이라 변통할 수 없거니와, 원원한 이 속관이, 소리 하는 법레로다.

- ① ㉠ - 인물, ㉡ - 득음, ㉢ - 사설, ㉣ - 너름새
- ② ㉠ - 인물, ㉡ - 사설, ㉢ - 득음, ㉣ - 너름새
- ③ ㉠ - 사설, ㉡ - 득음, ㉢ - 너름새, ㉣ - 인물
- ④ ㉠ - 득음, ㉡ - 사설, ㉢ - 너름새, ㉣ - 인물
- ⑤ ㉠ - 너름새, ㉡ - 사설, ㉢ - 득음, ㉣ - 인물

19. 아래 내용에서 말하는 고전 작품을 고르시오.

식영정을 찾아가 주인 김성원이 산수에 묻혀 지내면서 모든 시름을 잊고 지내는 삶을 칭송한 작품

- ① 성산별곡 ② 관동별곡
- ③ 사미인곡 ④ 속미인곡
- ⑤ 장진주사

20. 다음 작품의 작가와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영변의 약산(藥山)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 ① 민요시의 형식 ② <군말>
- ③ <산유화> ④ 김억
- ⑤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서울시 9급 해설과 정답>

1. ①

‘칠흑, 화투, 낱발(좋은 낱수가 잇따라 나오는 기세), 가자미식해(생선에 소금과 쌀밥을 섞어 숙성시킨 식품. 짓갈의 일종), 시래깃국(시래기+국=시래깃국[시래기국 / 시래긴국])’이 맞는 표기이다.

② 칠흑(×) → 칠흑(○), 낱발(×) → 낱발(○), 가자미식해(×) → 가자미식해(○)

③ 가자미식해(×) → 가자미식해(○), 굽뱅이(×) → 굽뱅이(○), 시래기국(×) → 시래깃국 (○)

④ 돌맹이 (×) → 돌맹이(○), 두더쥐(×) → 두더지(○)

⑤ 화토 (×) → 화투(○), 칠흑(×) → 칠흑(○)

2. ⑤ ‘내과(内科)’로 표기해야 한다.

* 예외적으로 사이시옷 표기하는 한자어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뒹간(退間) 횃수(回數)

3. ②

두억시니 : 모질고 사나운 귀신

4. ⑤

* 규범(規 : 법칙 규, 範 : 본보기 범) :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

(오답) 규범(閨 : 부녀자 규, 範 : 본보기 범) : 부녀자가 지켜야 할 도리나 범절

* 지향(志: 뜻 지, 向 : 향할 향) : 어떤 목표로 뜻이나 의지가 쏠리는 것.

(오답) 지향(指 : 가리킬 지, 向 : 향할 향) :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감.

* 병폐(病 : 병들 병, 弊 : 해질 폐) : 폐단, 나쁜 점.

(오답) 병폐(病 : 병들 병, 廢 : 폐할 폐) : 병으로 인하여 몸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됨.

* 시정(是 : 옳을 시, 正 : 바를 정) :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음.

* 내포(內 : 안 내, 包 : 싸다 포) : 어떤 성질이나 뜻 따위를 속에 품음.

5. ④

歸家(돌아갈 귀, 집 가) : ‘집으로 돌아가다 : 부사어-서술어’구조이다.

① 樂山(좋아할 요, 산 산) : ‘산을 좋아하다 : 서술어 - 목적어’구조이다.

② 治國(다스릴 치, 나라 국) : ‘나라를 다스리다 : 서술어 - 목적어’구조이다.

③ 修身(닦을 수, 몸 신) : ‘자신(몸)을 수양하다 : 서술어 - 목적어’구조이다.

⑤ 讀書(읽을 독, 글 서) : ‘책을 읽다 : 서술어 - 목적어’구조이다.

6. ③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7. ② ‘미숫가루’가 맞다. (‘미숫가루’는 틀린 표기)

① 상치쌈(×) → 상추쌈(○) ③ 지리한(×) → 지루한(○)

④ 보구료(×) → 보구려(○) ⑤ 바래요(×) → 바라요(○, 기본형이 ‘바라다’이다.)

8. ③

‘꼬이다’의 준말은 ‘피다’이다.

9. ⑤

① 과반수(過半數)를 넘기지 : ‘과반수(過半數)’가 ‘반수(半數)를 넘기다(過 : 지날 과)’의

뜻이므로 ‘넘기다’와 ‘과(過)’가 중복된다.

② 지난 과거(過去) : ‘과거(過去 : 지날 과, 갈 거)’에 ‘지나다(過)’의 의미가 있으므로

‘지난 과거’는 중복된 표현이다.

③ 그때 당시(當時) : ‘당시(當時 : 마땅할 당, 때 시)’가 ‘그때’의 뜻이므로 ‘그때 당시’는

중복된 표현이다. ④ 미리 예습(豫習): 예습이 ‘미리 익히다’는 뜻이다.

10. ④ ‘플래카드, 로봇, 캐럴’은 모두 맞는 표기이다.

① 초콜렛(×) → 초콜릿(○) ② 컨셉(×) → 콘셉트(○) ③ 악세사리(×) → 액세서리(○)

⑤ 레포트(×) → 리포트(○)

11. ⑤

주요섭의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어린 아이인 ‘옥희’의 눈으로 어머니의 모습을 관찰한 이야기이다.

*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 주인공=서술자 : 주인공이 자신의 이야기를 함 -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 - 이상 <날개>, 최서해 <탈출기>
1인칭 관찰자 시점	‘나’가 관찰자 입장에서 주인공의 이야기를 함 -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멀다. - 주요섭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채만식 <치숙(痴淑)>
작가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 작가가 외부에서 객관적 태도로 외면만 관찰하여 이야기 함 -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멀다 : 서술자는 인물의 행동과 표정만 알려준다. - 황순원 <소나기>, 염상섭 <두 파산>
전지적 작가 시점	- 분석적이고 전지전능한 작가가 인물심리, 행동 동기까지 이야기 하는 것으로 작가가 작품에 가장 폭넓게 관여하고, 해설, 논평도 하는 것. -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깝다 : 서술자가 인물의 모든 것을 알려준다.

12. ③

서정주의 ‘신라정신’ 개념은 그의 시와 산문들에 투시된 정신체계로, ‘토속적 샤머니즘, 불교의 인연설, 자연과의 합일’을 뜻한다. 미당 서정주는 신라의 설화를 소재로 많은 작품을 썼으며 시집에 <신라초>가 있다. (예) <꽃밭의 독백 - 사소단장(娑蘇斷章)> : 신라 박혁거세의 어머니 이야기인 ‘사소(娑蘇) 설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

13. ①

② 김동리 <화랑의 후예>, 나도향 <병어리 삼룡이>

③ 황순원 <카인의 후예>, 계용목 <백지 아다다>

④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 김유정 <봄봄>

⑤ 이상 <날개>,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14. ④

유치환 <일월>
* 주제 : 광명(생명 본연의 모습) 추구하고 불의의 세력에 대한 대결 의 지
* 특징 및 시어 풀이
① 생소하고 관념적인 한자어 사용. 영탄법, 설의법 사용
② 백일(白日) : 본연의 생명, 광명, 순수, 진실 → 삶의 지표
③ 비, 바람 : 자연 / 나의 생명 : 참된 삶을 지향하는 의지
④ 열애(熱愛) : 적극적, 주체적 사랑 / 애련(愛憐) : 나약하고 소극적 인 감정
⑤ 원수, 원수에게 아첨하는 자 :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부정적인 존 제 → 불의, 부정, 일제의 억압 ⑥ 태양, 일월(日月) : 정신적 · 이념적 지표, 삶의 지표

15. ②

독자로 하여금 ‘엄마’라는 단어를 통해 ‘반성’이라는 감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효용론적 관점’이라 할 수 있다.

내재적	작품 내부	절대주의 = 형식주의 = 구조론	㉠ 의의 : 문학 작품 그 자체만 보는 것. ㉡ 특성 : 작품의 언어, 구조 중시, 유기성 강조 (운율, 이미지, 상징, 어조, 구성, 갈 등) ㉢ 단점 : 독단적 형식주의, 문학사 무시
	외재적	반영론 = 모방론	현실 ㉠ 의의 : 문학은 현실세계(시대상황)를 반영한 것이다. (예) ‘허생전’은 조선 후기 사회상을 반영한 것이다. ㉡ 단점 : 메시지나 제재에 대한 선입관
		표현론 = 생산론	작가 ㉠ 의의 : 문학은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이 녹아있는 것이다. (예) ‘무정’의 주인공은 작가 이광수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 ㉡ 단점 : 의도의 오류 발생
		효용론 = 수용론	독자 ㉠ 의의 : 문학은 독자에게 교훈, 감동, 쾌감을 전달한다. (예) 이육사의 시를 읽고 저항 정신을 가졌다. ㉡ 단점 : 감정의 오류 발생

16. ④ <보기> 작품은 ‘사설시조’이다.

* 사설시조
• 개념 : 시조의 초,중장은 대체로 엮시조의 중장(40자 이내)의 자 수(字數)와 일치하고, 중장은 그 자수가 제한 없이 길어진 형태
• 평민 문학의 일환으로서, 산문 형태와 서민 의식을 배경으로 함.
• 지난날의 영탄이나 서경의 경지를 완전히 탈피하여, 구체적 묘사 와 상징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룸.
• 구체적, 서민적인 소재와 비유가 도입되고 거리낌 없는 자기 폭 로, 사회 비판이 이루어짐.

17. ①

서경별곡(고려가요) - 청산별곡(고려가요) - 사미인곡(가사, 조선 선조 때 정철이 지음) - 어부사시사(연시조, 조선 효종 때 윤선도가 지음) - 일동장유가(기행가사, 조선 영조 때 김인겸이 지음)

18. ②

㉠ 인물, ㉡ 사설, ㉢ 득음, ㉣ 너름새
㉤ ‘오음(五音)을 분별하다’에서 ‘득음’임을 알 수 있다.
㉥ 너름새 : 판소리에서 소리하는 사람(명창)이 소리의 가락이나 내용 에 따라 몸짓으로 하는 동작, ‘발림(광대가 노래할 때 연기로서 하는 몸짓)’과 같으나 ‘너름새’는 ‘가사, 소리, 몸짓’이 일체가 되었을 때를

뜻한다.

19. ①

정철의 ‘청산별곡’은 청산의 사계절 장관과 ‘식영정’ 주인 ‘김성원’의 풍 류를 예찬한 가사 작품으로 송순의 <면앙정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으며 ‘강호가도(江湖歌道)’를 확립했다’는 의의를 지니는 작품이다.

② 정철<관동별곡> : 가사작품으로 관동 지방의 절경 유람과 유교적 충의 사상을 드러내고 있다. 결사의 마지막에 시조의 중장과 같은 3 · 5 · 4 · 3의 음수율이 사용되었다.

③ 정철<사미인곡> : 가사작품으로 연군의 정을 드러내고 있다. 뛰어난 우리말 구사와

세련된 표현으로 서포 김만중이 ‘좌해진문장(左海眞文章)지차삼편(只此三篇) - 우리나라의 참된 문장은 오직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뿐이다’라고 칭송했다. <속미인곡>과 함께 가사 문학의 절정 을 이룬 작품으로 평가되며, <정과정>의 맥을 이은 충신연주지사(忠臣戀主之詞)이다.

④ 정철<속미인곡> : <사미인곡>의 속편으로 대화체 형식(갑녀, 을녀 두 여인의 대화)으로 임을 향한 일편단심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말 구 사의 극치를 보여줌으로써 가사 문학 중 가장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으 로 평가되고 있다.

⑤ 정철 <장진주사> : 국문학상 최초의 사설시조이다.

20. ②

<군말>은 한용운의 작품이다. <님의 침묵> 시집 서문에 실어둔 시인 데, 한용운의 시세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님만 님이 아니라 기쁜것은 다 님이다. 중생이 석가의 님이라면, 철학은 칸트 의 님이다. 장미화의 님이 봄비라면 마찌니의 님은 이태리다. 님은 내가 사랑할 뿐 아니 라 나를 사랑하느니라. 연애가 자유라면 님도 자유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이름 좋은 자유에 알뜰한 구속을 받지 않느냐.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나는 해 저문 벌판에서 돌아 가는 길을 잃고 해매는 어린 양(羊)이 기루어서 이 시를 쓴다.

<보기>의 작품은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다.

① 민요시 형식(7 · 5조, 3음보 형식)은 김소월 작품의 특징이다

③ <산유화>, ⑤ <바라건대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다면>은 모두 김소월 작품이다. ④ 김억은 김소월의 스승이다.